

# 지하 문화전당 랜드마크 기능 못한다

광주 유종필·최경주, 전남 이상열·국창근  
민주시·도당 위원장 2파전

## ■ 문광부 '문화수도 계획' 쟁점과 문제점

### 광주 7대 문화지구 분리 비현실적 문광부 추진기획단 독선 지역불신

문광부가 최근 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안을 공고하고 여론 수렴에 나섰지만 광주지역의 대체적인 반응은 '냉담'을 넘어 '수용 불가' 수준이다.

문광부의 종합계획안이 비현실적인 데다, 문화중심도시 조성 보다는 오로지 문화전당 건립만을 목표로 만들어졌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랜드마크 기능이 약한 문화전당을 재설계하고, 사업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사업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문화도시 사업이 문광부 독주로 이뤄지면서 지역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원초적 불만도 포함되어 있다. 문광부안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한다.

◇"지하건물 하나만 지으려나..." = 종합계획안에 대한 주요 쟁점은 ▲아시아 문화전당 랜드마크 보완 및 기능 ▲도시 리모델링(7대 문화지구 조성안) ▲문화산업 추진방향 ▲국고 지원 폭 등으로 요약된다.

광주시와 시의회, 지역 전문가, 도심 지역 주민들은 지하 위주의 설계 대신 외

형적 랜드마크 기능을 보완해줄길 요구해왔다. 보완이 어렵다면 설계를 다시 해서라도 세계적인 명물로 건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건물의 기능에 대해서도 '문화적 실험성'이 강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과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형 오페라나 뮤지컬을 공연할 수 있는 국제적인 공연장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시 리모델링과 관련, 문광부는 광주 전역을 7대 문화지구로 나눠 동시에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안이라고 일축한다. 광주시는 문화전당 인근 지역에 대한 도심활성화를 통해 그 효과를 자연스럽게 광주 전역으로 파급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광부는 조성사업의 재정지원 방향에 대해 문화전당은 국고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사업은 파급효과가 클 경우를 제외하곤 지방비 부담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이에 대해 시와 시민단체들은 조

성사업 성패의 관건인 도시 리모델링에 만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발전과 직결되는 문화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문광부는 창작·제작·유통·인력양성 등 빈약한 문화산업의 기반 조성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시는 산업활성화 및 고용효과를 위해 문화 산업·체험·관광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문화산업지구 조성을 원하고 있다.

기초문화예술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문광부는 '아트마켓' '국제 아트페어' 등 각종 국제 행사와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와 지역 예술계는 구체성이 전혀 없고 타 지역의 행사와 차별화되지 않는 만큼 지역의 열악한 문화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문광부의 '독주'가 상호 불신 불려 = 문광부 문화중심도시 추진기획단의 독선과 폐쇄성이 지금과 같은 불신 상황을 불렀다는 지적이 많다.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설 옛 전남도청 인근 건물들의 철거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옛 도청과 도 경찰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건물이 철거된 상태다. /위직량기자 jrvi@kwangju.co.kr

지역 대학 교수들은 문광부가 각종 연구와 용역을 추진하면서 자신들과 성향이 맞는 세력들이 독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진행 과정에서도 광주시·지역 전문가들을 배제하기 일췌였다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문광부가 지역의 특정 문화 세력의 의견만을 수렴했고, 수차례의 각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안에 지역의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민중당 광주시당위원장 경선에 유종필 현 시장위원장과 최경주 북을지역위원장이, 전남도당위원장은 이상열 의원(목포)과 국창근 전 의원이 출마, 각각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광주시당위원장=유 후보는 '정계개편에서 민주당 얼굴 역할'을, 최 후보는 '광주 정서에 맞는 관리능력'을 역설하고 있다.

유 후보는 김종배(동구)·정범석(남구)·김동신(북구) 지역위원장의 후원을 받고 있다. 특히 현 시장위원장으로서 기독교를 심분 활용하는 한편 지난해 지방선거 때 인연(?)을 무기로 대의원들을 공략했다는 방침이다.

'토박이론'을 펼치는 최 후보는 유 후보가 그동안 시장위원장으로서 역할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차원에서 대변인 역할에 더욱 치중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전갈길 관산구청장과 강박원 광주시의회의장의 지원이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다.

◇전남도당위원장=이 의원은 '민주당을 살릴 적임자'임을, 국 전 의원은 '민주당 지킴이론'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 원내인 이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원외인 국 전 의원은 원외 위원장들의 지지를 각각 기대하고 있지만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어느 쪽으로 쏠릴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이다.

국 전 의원은 "민주당은 유일한 대안정당이지만 지난 3년동안 당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당내 민주화와 외부인사 영입을 통해 민주당 중심의 정계 개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위기상황의 민주당을 재건하기 위해 당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며 "중도개혁세력을 결집해 수권정당으로 만드는 데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일보 2007 테마 이젠 實利다

<16> 지역대표 기업을 보살피자

# 지역 먹여 살리는 성장엔진 '주식깎기' 등 시민운동 절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은 21% 수출증가율을 달성, 전국 수출증가율에 비해 6%p나 높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광주의 수출증가율은 25%로 전국 최고를 기록함으로써 그간 소비도시였던 광주가 생산 및 수출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대기업의 수출비중은 60%를 웃돌아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협력업체와 고용창출에 대한 파급효과도 적지않다. 삼성광주전자를 따라 50여개의 협력업체가 수도권에서 광주로 이전했고, 기아차 광주공장도 이와 엇비슷한 협력업체를 광주·전남지역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한 직간접 고용효과만 해도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작년 광주 수출증가 큰 기여

이같은 광주·전남지역 대기업들의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않은 않다. 경영권 세습, 채용비리, 비윤리 경영 등 부정적인 측면만을 대기업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인식해온 탓이다.

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미운 구석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대기업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때"라며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지난해 하반기 광주상사가 광주지역 기업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기업호감도지수(CFI)'는 전국 평균(50.2)을 밑도는 46.5점에 불과했지만, 2005년 하반기나 2006년 전반기(43.0점)에 비해 3.5점 높아져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게 희석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이 진정한 지역발전의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지역민들이 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내고장 기업 주식깎기 및 제품 사주기' 등 실천적인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기업 부정적 이미지는 크게 희석

2005년 울산시민들의 'SK주식사기 시민운동', 지난해 포항시민들의 '포스코 1주깎기 시민운동', 경북 구미시민들의 'LG 필립스LCD 1주깎기 운동', 최근 창원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하천의 물꼬를 바꾼 일 등을 모범답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가.

광주·전남경총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기아차 광주공장의 자동차, 삼성광주전자의 가전제품, 금호타이어의 타이어 등이 광주·전남지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면서 "내고장 기업을 보호하고 살려야 지역이 발전한다는 차원에서 지역제품 사주기 운동을 전국 전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지역-기업 상생관계 모색해야"

이에 대해 광주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먼저 사회적 지탄을 받는 비윤리 경영, 수년째 지속되는 노사갈등 등의 고리를 끊어낼 때 지역민들이 기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지역-지역기업의 상생관계를 체계적으로 모색하는 작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대기자 jitee@kwangju.co.kr



지역과 지역대표기업의 공동발전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털어내고 지역제품 사주기 등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스포티지 생산라인. /위직량기자 jrvi@kwangju.co.kr

좋은사람  
좋은대화  
좋은안주

그래도  
2%부족할 때

카-소리가 짙어지고  
나누는 마음이 얽어지고  
어깨에 얹은 손이 가벼워지는 요즘  
2% 더 깊은 술자라가 아쉽습니다

22도로 소주의 참맛을 살린 춘천임새  
메이플 시럽을 첨가하여 맛도 느낌도 부드럽다

소주의 참맛을 2% 살렸다! 2% 줄어든 22도의 알코올 도수로 소주 본연의 참맛을 살렸다. 미국농장으로 맛을 숙성시켰다! 특히 숙성숙진공정미 및 익은 곡물추출물로 숙성미가 뛰어나. 피지비 25.3% 춘천임새만큼 깨끗하다! 춘천매래미이 포함된 약진상향수로 숙제해소기 유통되고 있다.

소주참맛, 2%부족할 때  
춘천임새